

##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... 「공항운영 개선위원회」 출범

-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이행 전반을 관리... 공항 이용객 제안 정책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공항 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발굴·추진할 수 있도록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「공항운영 개선위원회」(이하 위원회)를 구성하고, 5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□ 그간 공항공사(인천·한국)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의견수렴 채널\*들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여를 해왔으나, 운영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, 운영자 권한 제약·법령개정 수반 등의 한계가 있어 이용객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정책화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.

\* (인천공항공사) 외국인 포함 고객위원회('06~) / (한국공항공사) 교통약자 등 포함 국민제안단('19~)

□ 위원회는 공항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정부·공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.

○ 위원회는 5월 19일 ‘교통약자 편의 개선’ 안건 심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“공항 이용객들께서 공사에 제안해주신 의견들이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”이라고 하면서 “항공 재도약기를 맞아 우리나라 공항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 공항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철운 (044-201-4347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완 (044-201-4354)
			주무관	정재홍 (044-201-4343)